



대한민국 치즈 일번지 임실군이 2017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한다.

# 치즈체험, 치즈마을 즐거움 두 배

### 임실군, 전북 방문의 해 맞아 내일부터 관광객 대상 스탬프 투어 운영

“신나게 치즈체험도 하고, 스탬프도 찍으며 기념품도 챙겨볼까”. 대한민국 치즈 일번지 임실군이 2017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한다. 임실군은 10일부터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임실치즈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임실치즈 스탬프투어는 2가지 이벤트 형태로 실시된다. 먼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치즈체험 후 스탬프 책자를 수령한 후 치즈테마파크 6개소와 치즈마을 2개소를 찾아 스탬프를 찍은 후 판매장에 들러 기념품을 받으면 된다. 치즈테마파크 6개소는 치즈가 피자

가 되고 스파게티가 되는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신기한 치즈체험관과 임실치즈의 탄생부터 성장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치즈캐슬, 임실치즈테마파크 전경을 담아내는 홍보탑,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공간인 플래이랜드와 시계탑, 포토존 등이다. 치즈마을에서는 로컬푸드 판매장과 치즈체험장, 초가모정, 치즈의 문 중 2개소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임실치즈 스탬프투어는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재미와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 치즈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임실치즈 여행

을 즐기는 모습을 임실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imsl.go.kr)와 임실여행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전북투어패스를 선물로 받게 된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전북도 주요 유류 관광지과 시군내 시내버스와 공연주차장 무료이용은 물론 맛집과 숙박, 공연이용 등 특별한 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 관광패스다. 군 관계자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에 많은 체험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치즈관광 일번지로서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철의 왕국’ 가야문화권 발전방안 제시

### 남원 정척자문위 운봉고원서 유적지 발굴 따라... 세계유산 등재 ‘탄력’

지난 해 말 새롭게 구성된 남원시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상선)의 제2차 회의에서 가야문화권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논의는 올 초 남원시의 요청으로 가야사 관련 전문가인 군산대 박장근 교수의 정책제안 형태로 이루어져 새롭게 구성된 남원시 정책자문위

원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남원시는 운봉고원 일대에서 ‘철의 왕국’ 가야의 재출유적이 발견되면서, 가야문화권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도 위상이 높아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하면서 영·호남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철의 왕국 기문국이 깨어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남원기야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200여가지 약용식물을 한눈에

###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볼거리·체험거리 다채

순창군이 농업에 치유를 덧입혀 관광과 연결한 의농업 체험관에 8가지 테마200가지 약용식물을 식재하고 8일부터 개방에 나서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볼거리가 한층 강화 됐다. 의농업체험관은 인체에 치유효과가 있는 다양한 약용 작물 등을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균이 당뇨 등 만성질환 치유를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인계면 인덕로 건강장수테마파크관 옆 지상 1층 640.80㎡규모로 지난 7월 외관공사를 완료하고 약용작물 식재에 들어가 최근 식재를 완료해 본 모습을 갖췄다. 의농업체험관은 8가지 테마의 약용 작물들이 식재됐다. ▲비노기와 부인과 질환에 좋은 약초 ▲간질환, 간암에 좋은 약초 ▲고혈압 혈액순환에 좋은 약초 ▲수생식물 약초 ▲이비인후과 기관지 질환에 좋은 약초 ▲피부과 질환에 좋은 약초 ▲혈액분비계 질환에 좋은 약초 8가지 테마다. 비노기 부인과 질환 약초로는 북

분자 산수유 송엽국, 일엽초 등이 간질환 간암 관련해서는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부처손, 인진쑥, 결명자 산작약 등이, 고혈압 혈액순환 관련해서는 뽕나무 진달래, 삼백, 질경이, 영경귀, 천궁 등이 식재 되어 있다. 수생식물 약초로는 어리연, 백련, 홍련, 가시연 등이 식재돼 있고 이비인후과 기관지계 관련해서는 범부채, 도라지, 오미자, 감초 민들레 등이 식재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피부과 질환에 좋은 약초로는 황기, 어성초, 적작수, 석창포, 층층이꽃 산과불주머니 등이 심어졌고, 혈액분비계 질환과 관련해서는 둥굴레, 맥문동, 바다나물, 돼지감자 등을 식재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계 질환에 좋은 약초로는 느릅나무를 비롯해 과학향, 자소엽, 짚신나무 개똥쑥을 식재했다. 특히 약초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별도 진행하기 위한 체험시설도 마련됐으며 8월경 본격 체험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농어촌공,기름극복저수지 준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오진후)는 항구적인 종합기름대책의 일환으로 극심한 기름해소를 위해 구립면 월정리 소재 구립저수지 준설사업을 긴급 시행하고 있다. 구립저수지는 현재 저수를 37%로 극심한 기름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수해면적 238ha, 총저수량은 123만톤이며, 긴급으로 국비 1억4000만원을 들여 지난 7일 착공해 본격 공사를 추진 이날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진후 지사장은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과 점검으로 완벽한 저수지 준설을 통해 기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순창군 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수도시설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환경수도과정을 반장으로 2개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 구조물의 균열·변형 및 침하여부, 취·정수장·가압장 주변의 법면상태, 송·배수관로의 파손 등 이상 유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또한 사전 안전 실태와 우수배제시설·침출수처리장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즉시 정비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정비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고급형 시내버스 시범 운영

남원시는 12일부터 ‘고급형 시내버스’를 일부 노선에 시범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163개 노선에 42대가 운행 중이며, 우선적으로 6월 중순부터 5대를 운행하고, 하반기에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급형 시내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보다 좌석 넓고 편안하게 제작되어 승객들에게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다. 고급형 시내버스 운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장거리 이용 승객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여름휴가철 관광객 위한 휴게소 마케팅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의회에서는 10일에 신관사포부입행차 공연단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여 여름휴가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남원시관광협의회에서는 매년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축제장, 다중집합장소 등 관광시절별 찾아다니는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우리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홍보활동은 ‘올 여름은 시원한 남원에서 즐겨요!’ 라는 주제로 경남·북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데, 우리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와 시

원한 지리산의 계곡 및 돌래길, 상설공연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상품 안내와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는 스탬프 투어, 전라북도 투어패스 카드 홍보 등 우리시의 다양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남원의 대표 관광상품인 신관사포부입행차 공연단이 참여하여 화려한 복장과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를 선보이며, 캐리터 포토존, 관광홍보물 배부 등 차별화 된 이벤트를 실시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주요 하천에 치어 방류 실시

임실군은 8일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지역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치어 방류를 실시했다. 군은 수생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메기와 붕어 치어 100만 마

리를 방류했다. 희망 어종 및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 신청 받아 메기 6cm 이상, 붕어 4cm 이상 크기의 건강한 치어로 엄선했으며 향후 2~3년 후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